

전남도, 공공·상생 배달앱 프로모션 확대한다

1분기 이벤트 매출 성장 성과 첫 주문·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로컬상품 확대·지역축제 연계 “소상공인·소비자 상생 정책”

전남도가 소상공인의 중개수수료 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한 공공·상생배달앱의 1분기 프로모션이 매출 성장세로 이어짐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축제 등을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키로 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동안 가맹점 확대 및 홍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에 집중했다. 가맹점 확대를 위해 전남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협회

전남지부 등과 협업해 사업 안내 및 홍보를 추진했다. 누리소통망(SNS)과 시군 누리집 등 온라인 홍보를 펼친 결과 약 60만명이 게시물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공공·상생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도 추진 중이다. 공공배달앱 ‘떡깨비’는 지난 3월부터 소비자 첫 주문 할인쿠폰 지급, 더블할인쿠폰 지급, 우수·신규 가맹점과 공짜배달 가맹점 대상 20만원 상당의 지원금 프로모션을 시행했다.

상생배달앱 ‘뽕겨요’도 지난 3월2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연동을 시작,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시 최대 5000원 할인쿠폰을 지급했다. 이 외에도 최대 1만원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먹킷챌린지 이벤트, 신규 가맹점 대상 20만원 상당의 사장님 지원금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펼치고 있다.

추진 중인 프로모션은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공배달앱 ‘떡깨비’는 지난달 2일 기준 누적 회원 수 10만명을 넘기고, 누적 가맹점은 18일 기준 1만 개소를 달성했으며, 월 매출액 또한 계속해서 늘고 있다. 상생배달앱 ‘뽕겨요’도 지난 3월 기준 월 주문건수와 월 매출액이 전월보다 2배 이상 오르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공공·상생배달앱의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 및 콘텐츠를 확충할 계획이다.

‘떡깨비’는 5월 중 지역사랑상품권 연계 5% 할인이벤트, 7월 중 ‘떡깨비’ 2주년 기념 할인이벤트를 진행한다. 로컬상품 품목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배달서비스도 연내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담양 대나무 축제 기념 할인이벤트, 강진 봄꽃축제 기념 할인이벤트 등 지역 축제와 연계한 지역 맞춤형 프로모션도 시군 단위로 시행한다.

‘뽕겨요’에서는 첫주문·재주문 시 최대 1만원 할인쿠폰 지급, 뽕데이 할인이벤트, 신한은행 뽕겨요 적금 가입 시 최대 1만원 할인쿠폰 지급, 6월까지 시행하는 신한은행 계좌 결제 시 최대 10% 뽕겨요페이 적립 등 다양한 소비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또한 공공·상생배달앱 사용 활성화를 위해 배달앱 주사용자인 엠지(MZ)세대 대상 플랫폼 활용 온라인 홍보, 시군 방문 사업 설명 및 홍보, 전남 주요 행사·축제 연계 홍보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오수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코로나 일상회복에 이은 자율방역 전환으로 외출이 더욱 늘면서 배달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공공·상생배달앱의 매출액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긍정적인 지표”라며 “공공·상생배달앱은 높은 물가로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상생하는 정책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사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전남도 “여수·광양항 활성화 적극 대응”

발전추진협의회서 대책 논의 자동화부두 등 기반 구축 협력

전남도가 지난 2018년 241만TEU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인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 및 여수·광양항 활성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달 29일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박창환 정무부지사, 송상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기홍 광양시부시장, 황학범 여수광양항만공사 경영부사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광양항 발전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 방안 △여수·광양항 활성화 건의사항 △홍보 및 협조사항 △자율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여수·광양항은 국내 수출입 물동량 처리실적 1위 항만이자, 총물동량 처리실적 2위 항만으로서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난 2018년을

정점으로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이에 심각성을 느끼고 유관기관별로 물동량 감소 원인 및 대책, 향후 계획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어 광양항 자동화부두 구축사업, 율촌융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 1층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제도 개선, 광양항 전문인력 양성 기반시설 구축 등을 위해 기관별로 적극 협력키로 했다.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여수·광양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육성 전략을 만들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며 “회의에서 다룬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 사업을 적극 검토해 여수·광양항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광양항 발전추진협의회는 여수·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전남도와 여수·광양항 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 등이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발전 토대가 될 현안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협력기구다. 위원장은 전남도 정무부지사이며, 위원은 12명으로 구성됐다.

곽지혜 기자



광주 동구 올해의 책 선포식

임택 광주 동구청장, 독서단체와 선정위원 등이 30일 동구 책정원에서 열린 2024 책 읽는 동구 올해의 책 선포식에서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대표에게 선정도서를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영배 기자

광주시-공공기관 협업시스템 강화 나선다

보고·협의·조정... 공모사업 발굴 조직·인사·재정 표준매뉴얼 보완

광주시가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협업지원시스템을 강화하고, 저비용·고효율의 공모사업 발굴에 집중한다.

30일 광주시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2차 공공기관(부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함께! 새롭게! 시민행복을 향한 밀착동행!’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시와 공공기관의 협업지원시스템에 대한 고도화 방안과 저비용·고효율의 공모사업 발굴을 위한 협업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는 공공기관과 밀착동행에서 시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이 행복한 광주’를 실현하겠다는 전략이다.

광주시와 공공기관의 협업지원시스템은 보고와 전달 중심(공공기관·관리부서→전략추진단)의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유기적 협업지원체계(관리부서·공공기관·전략추진단)로 전환해 공공기관 주요 사안에 대한 협의와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또, 일부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적 일탈과 위법행위로 인해 혁신의 노력과 성과

가 동력을 잃지 않도록 지난해 완성된 조직·인사·재정·보수 관련 표준매뉴얼을 보완하고,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광주시와 공공기관의 동행전략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회의 방식 개선(과제중심 토론) △시-공공기관 협업사업(지역할 분담) 및 인력채용 프로세스 개선(수요인력 일괄 선발, 통합연수) △각종 제도표준 정비(보수체계, 임금피크제, 공무원 직급 등)에 나선다.

공공기관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직접평가) △출자·출연금 관리 강화(출연금 정산·반납) △위탁사업의 타당성 검증(공기관 대행사업) 절차 등을 마련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이 우선 검토해야 할 공모사업으로 △저비용·고효율형 △지역 대표산업 연계형 △지역현안 해결형 등 3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해 준비절차 등 노하우를 공유하고 고려해야 할 중요사항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기후에너지진흥원은 공모사업 발굴과 준비절차 등 일련의 과정을 공유하며 사업규모가 작더라도 지방비 부담이 적은 고효율 공모사업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환경부 공모사업인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참여 등 공공부문의 역할을 제안했다.

광주테크노파크는 광주경제를 지탱해 온 지역 부품기업들의 ‘미래차 산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역 대표산업 연계사업으로 홀로봇가전 지능형 부품개발 전주기 지원사업(신청·평가준비)과 인공지능 맞춤형 뷰티기기 고도화 글로벌 지원사업(기획중)을 사례로 제시했다.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광주시 실정에 맞는 지역현안 해결형 공모사업 참여의 효과성을 설명하면서 국가공모사업의 유형과 동향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공공기관 임직원은 시민 행복찾기에 나선 광주 대표선수”라며 “2030 광주 대전환을 선언한 만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확실한 변화를 위해 공공기관별 ‘대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고, 기관 설립 목적에 맞는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성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 시장은 또 “일부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고, 이를 개인의 일탈이라고 말하지만 시민이 바라볼 때는 개인이 아닌 기관과 광주시 공공영역의 일탈로 본다”며 “우리 모두가 공정한지 한 번 더 고민하면서 시스템이 공정하게 작동하는지 주도면밀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전남 개별주택가격 0.91%·0.58% 상승

광주와 전남지역 개별주택가격이 전년보다 각각 0.91%, 0.5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7만5923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5개 자치구별로 30일 공개했다.

광주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91% 상승했으며, 지역별로는 △동구 1.01% ↑ △서구 1.28% ↑ △남구 1.10% ↑ △북구 0.24% ↑ △광산구 1.19% ↑ 등이다.

개별주택 가격수준별 분포는 3억원 이하 주택이 6만7017호(88.27%),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이 7335호(9.66%), 6억원 초과 주택이 1571호(2.07%)다.

또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광주시 공동주택가격은 광주 평균 전년 대비 3.1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구 3.1% ↓ △서구 2.8% ↓ △남구 4.0% ↓ △북구 2.9% ↓ △광산구 3.2% ↓ 등이다.

전남도도 이날 개별주택 36만여 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22개 시·군별로 공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소폭(0.58%) 올랐으며, 시·군별로는 함평이 1.44%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흥(1.14%), 화순(0.85%)이 뒤를 이었다. 상승률이 소폭에 그친 것은 당초 주택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3.6%로 예상됐으나, 정부가 전년도와 동일 수준(53.6%)으로 동결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지역 최고가 단독주택은 여수시 소호동 소재 주택으로 24억원이며, 최저가는 70만원으로 진도군 조도면 소재 주택이다.

올해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해당 주택소재지 지자체 누리집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주택 소재지 지자체,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주택 소재지 지자체, 한국부동산원에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검증과정을 거친 후 6월27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노병하·곽지혜 기자